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전남 최고 금액' 지원

명예수당 10→15만원으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보훈가족 예우 분위기 조성

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최상의 보상 지원을 위해 도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한다.

광양시는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보훈·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보훈·참전의료비수당 월 3만원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신설 등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전입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 수당 미수급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신설된 의료비수당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다.

배우자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광양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 시행될 부터 지원한다.

단, 보훈 자격 승계를 받아 시 보훈명예

수당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계좌번호로 입금되고 신규 신청 대상자와 거주기간 미도래 사유로 미수급 대상이었던 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신설에 따라 전남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됐다.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최고 금액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신설로 전남에서 최고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월부터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인상해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산 친화적 지역분위기 조성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소중함 아기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로 출산 친화적 지역분위기를 위해 계획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사진,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익월 20일 이내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등기로 받을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김은지기자

경기 광주시와 고향사랑 응원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군은 8일 공영민 고흥군수와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환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2014년 자매결연을 맺은 두 지역 단체장의 교환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 1월 공영민 고흥군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할 당시 제주도에 기부한 바 있다.

김은지기자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성공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교육, 최소기능제품(MVP) 제작지원, MD상담회, 투자유치 IR지원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2개사를 지원한다.

지난 4년 동안 전남센터는 해당사업을 통해 138개 기업을 발굴 및 지원했으며 전남오픈창업 멘토단의 밀착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2020년 창업기업인 ㈜포스리젠과 ㈜이옴텍이 '도전! K-스타트업 2020'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남의 창업전문기관으로서 유망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기자

순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근절·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순천시는 이달부터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영치 대상 차량은 3770대로 체납액은 31억원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승,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270대 차량(체납액 16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1500대 차량(체납액 15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관외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3개조 17명의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차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순천시 징수과를 방문해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가 이달부터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중이다.

순천시 제공

여수시, 여수미래혁신지구 기관단체와 '상생발전 모색'

입주기관 간담회 개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여수시가 여수미래혁신지구 기관단체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수미래혁신지구의 입주기관과 기관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정 시장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남동부지사)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대 공정혁신시물레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미래혁신지구 현장(공정혁신 시물레이션 센터)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이선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에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안전체험교육장 활성화 방안, 후속사업에 대한 관심 요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여수미래혁신지구 현장을 둘러보며 기관별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건외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꾸준한 소통으로 상호 협력해 미래혁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고고톡 서포터즈' 모집 군정·현장소식 취재 및 홍보

고흥군은 군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흥소식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SNS 기자단, 고고톡(GO-Goheung-Talk)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고고톡 서포터즈'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로 고흥을 널리 알리는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SNS기자단으로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개인 SNS 계정이 있으며 고흥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글쓰기와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사람으로 SNS 운영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일반 10명, 중·고등학생 5명으로 총 15명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공지사항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2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활동기간은 2년 간이며 △고흥군의 축제, 문화, 행사 시 다양한 현장소식 취재 홍보 △고흥의 숨은 명소와 맛집 등을 찾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 △고흥군 공식 SNS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좋아요, 공유, 댓글)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김은지기자

순천시, 도심 빈집 리모델링... 내달 3일까지 사업자 모집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3년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 사업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원도심 내 장기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창출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시가 협력해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4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061-749-3038)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래 총 11동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3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는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 리모델

링 공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시공자에게 배포해 단열 등 하자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되었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완공주택 점검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해당 사업이 도시공간재생과로 이관된 만큼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